기아 (000270)

주가 (4월 9일) 150,500원
시가총액 58,757.2십억원

[Analyst] 박광래 연구위원 krpark@shinhan.com
한승훈 연구원 snghun.han@shinhan.com

기아 CEO Investor Day 주요 내용 1

주요 사업 및 재무 목표

2030년 도매판매 413만대, 글로벌 MS 4.5%, 매출 170조원, 영업이익 17조원 목표 설정

2026년 도매판매 335만대, 글로벌 MS 3.8% 달성 목표

2026~2028년 총주주환원율 35% 이상 달성 목표

시장 전략

#파워트레인별 고객군

ICE, HEV, EV 모두 유의미한 비중 유지될 전망. EV 수요는 2030년 29% 수준까지 확대 전망
ICE 수요의 HEV 이동 or 일부는 EV로 전환. HEV는 전동화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가교
eLCV는 높은 성장세 전망
기아는 2030년 ICE 198만대, xHEV 115만대 판매 목표 설정
총 313민대로 ICE/xHEV 시장에서의 점유율 4.8% 달성 목표

#제품 경쟁력 강화

1) 라인업 확대
2030년까지 ICE 신차 9종, HEV 신차 10종 출시 예정
ICE는 올해 출시한 텔루라이드, 셀토스 포함해 핵심 차종 지속 출시 예정
HEV는 셀토스와 K4를 시작으로 적용 차종 확대. 2030년에는 미국시장 전용 픽업트럭 출시 예정

2030년 픽업트럭은 글로벌 차량 수요의 9% 기록할 전망
2025년 타스만으로 신흥 픽업시장 진입
2030년 북미전용 픽업 시장 EREV 픽업트럭 출시 예정

2)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2030년 글로벌 HEV 수요 1,460만대 전망
기아 HEV 판매량은 2026년 69만대에서 2030년 11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
유연 생산체계 구축해 혼류 생산 가능. 규제와 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응
해외 거점별 생산 최적화. 지역별 수요 변화에 대응 역량 강화 예정
한국 포함한 인도, 중국, 멕시코 생산공장은 ICE, HEV 신흥시장 주요 공급 거점

EV 전략

EV는 기존 전망 대비 둔화되면서 지난해 EV 보급율 16.1% 기록
합리적인 가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
기아는 2030년 EV 100만대, MS 3.8%(중국 제외 6.8%) 달성 목표 설정

1) EV 제품 경쟁력 강화

2026년 현재 11개 모델에서 2030년까지 승용2종, SUV9종, PBV 3종으로 14개 모델로 확장. 2026년 EV2, 씨로스 EV, 2027년 신규소형 해치백 전기차 등 볼륨 EV 지속 출시 예정

2027년 PV7, 2029년 PV5 등 PBV 라인업 확대하고 신규 C SUV 포함 신모델도 순차 출시

차세대 EV 플랫폼 개발 계획
배터리용량 40% 확대, 모터출력 9% 향상,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
자율주행 LV 2++ 적용, 5세대 배터리 적용으로 품질 개선 계획

2) EV 접근성 향상

충전 인프라 확대 + 고객 접점 확대 계획
초급속 충전소 확대 및 주요 시장 충전 연합과 파트너십으로 네트워크 확장 예정. 국내에서는 Epit 적극 확대 예정
충전인프라(완속 등 포함)는 북미 24만기, 유럽 100만기, 국내 48만기 확보

3) EV 공급망 강화

EV 전용 공장인 광명, 화성 EVO 플랜트에서 EV 생산 효율 극대화해 볼륨 모델 가격 경쟁력 확보 예정. 인도 신흥시장 전략 EV, 미국 EV6/EV9, 멕시코 EV3, 중국 EV5, 유럽 EV2/EV4 등으로 지역별 수요 맞춤 대응 중

PBV 비즈니스

기존 LCV 생산은 소품종 대량생산 모델로 외부 특장 개조 의존으로 비용 증가 및 환경 부담 발생해옴

기아는 전용 EV 플랫폼으로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OEM 주도 컨버젼으로 자원 낭비 최소화. 맞춤형 HW, SW 기반 솔루션, 미래 기술 기반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계획

2030년 글로벌 LCV 시장 447만, eLCV 시장 105만대 전망

기아의 2030년 판매 목표는 23만대
전동화율 41.5%인 한국과 33.5%인 서유럽을 핵심 PBV 시장 설정
2026년 글로벌 5.4만대, 서유럽 2.5만대, 한국 2.3만대 판매 목표

eLCV 상품 전략

1) 상품

2029년까지 PV5, PV7, PV9 라인업 구축 예정
PV5 기본 모델은 패신저, 카고, 샤시 캡으로 구성
PV5 기본 모델과 컨버전 모델은 글로벌 시장 순차 출시 예정

2) 제조 생태계

화성 EVO 플랜트 중심으로 컨버젼 센터, 글로벌 컨버젼 파트너십 연계
화성은 다품종 소량 생산 대응 가능한 공장. EVO 플랜트와의 상시 협업으로 컨버젼 센터 운영. 파트너십 체계로 로컬 컨버젼 업체 발굴, 지역 특화 수요 대응

3) 솔루션

12.9인치 IVI 기반 B2B 특화 앱 제공
플릿 관리 시스템으로 고객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에 기여
금융 유지 보수 보험 충전 등 특화 서비스 제공하고 비용 통합 청구 체계 구축

4) PBV 전용 채널

오프라인에서 PBV 전문딜러와 센터를 통해 체험 가능
온라인에서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제품, 서비스 정보 제공
전문인력 운영해 B2B 고객 특화 서비스 제공

초과 성장 전략

1) 미국 판매 확대 전략

미국 산업 수요는 2030년까지 1,630만대 수준 정체 예상
다만 HEV 수요는 ICE 수요 대체로 연평균 22% 성장세하며 HEV 비중은 2030년 40%로 확대 전망

기아의 2030년 미국 판매 목표는 102만대, HEV는 47.4만대, MS 6.2%
HEV모델 2030년 8개로 확대 (2025년 4개)
2026년 텔루라이드 셀토스, 2027년 K5, 2028년 K4,
2030년 픽업 하이브리드 순차 투입

2030년 북미생산비중 56%에서 67%로 확대
현지 생산 확대로 정책, 관세, 공급망 등 외부 환경 변화 대응력 확대
고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주요 모델 경쟁력 강화

2030년 미국 시장에서의 SUV 수요는 차량 수요의 62%까지 확대
SUV 수요 확대에 대응해 풀라인업 기반으로 10만대 이상 볼륨 차종 육성

서브컴팩트 차급은 주요 모델인 스포티지 모델 확대로 단일모델 최초 20만대 체제 구축 계획. 스포티지 HEV 믹스는 68%로 전략적 확대 계획

미드사이즈 SUV도 HEV 중심 판매 확대 확대 전망. 기아는 차급내 top3 판매 달성 추진
텔루라이드는 생산 캐파 지속 확대 중이며 18만대까지 연간 캐파 확대 예정 (2027년)
2029년 EREV 출시를 더해 2030년 전동화 차량 비중 70%까지 확대
차급 내 시장 점유율 10% 계획

엔트리 SUV 시장 수요는 소폭 증가하겠으나 HEV 수요는 지속 확대 전망
셀토스 연간 10만대 모델로 육성. 올해 셀토스 HEV 출시해 수요 대응

픽업 시장 진출, 신규 PT 런칭(29년~)
미국 픽업 시장은 전체 시장의 20% 차지
BoF(바디 온 프레임) 픽업트럭 출시 예정

2) 서유럽 판매 확대 전략

제한적인 산업 수요 성장 전망
하지만 EV수요는 연평균 20% 성장해 2030년 43% 비중 전망
기아의 서유럽 2030년 판매 목표 75만대, EV는 49.4만대 목표

유럽 B/C 차급은은 EV 내 최대 볼륨 차급
B-HB EV 2027년 모델 출시(SDV). 차급내 점유율 6% 달성 목표

B-SUV는 2030년까지 큰 폭의 성장 예상 전망. EV3는 대표적인 대중화 EV모델로 경쟁력 입증됨

C-SUV EV는 유럽 EV 시장 내 가장 큰 핵심 볼륨 차급
현재 EV5 출시. 29년에는 대표 볼륨 신차 모델 출시
향후 SDV 기반 기술 적용 예정. 차급내 시장점유율 8.7% 목표

PBV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eLCV 수요 공략
eLCV 수요는 2030년까지 3배이상 성장 전망
PV5 활용해 신규 수요 발굴하는 중. 향후 7, 9 를 순차 출시해 커버리지 확대

유럽은 EV 중심 중장기 재편 전망. 탄소 규제 완화로 단기 HEV 수요 확대 전망. 기아는 HEV 라인업과 공급거점 동시 확장 계획. 멕시코, 슬로바키아, 한국을 공급 거점으로 사용해 유연성 강화

3) 신흥 시장 판매 확대 전략

신흥시장 수요는 2030년까지 연평균 3% 수준의 견조한 성장 지속 전망
2020년 1,340만대에서 2030년 2,240만대 전망
2020년 56만대에서 2025년 100만대로 신흥시장 판매 확대했고 MS 4.4%에서 5%로 성장. 기아 2030년 신흥시장 판매 목표 148만대 수립. MS 6.6% 목표 설정

중남미 현지 특화상품 개발. 아중동은 아프리카 시장 중심 판매 강화
CIS에서는 CKD 공장 활성화. 아태에서는 현대 인니 공장 활용해 아세안 전략모델 개발 집중 계획

2030년 인도는 41만대 판매, MS 7.6% 체제 구축 계획
기아는 25년 7개의 모델로 28만대를 판매
2030년에는 라인업 10개 확대. ICE, HEV, EV 전반 아우르는 라인업 구축
2025년 카렌스 EV 시작으로 2026년 7월에 씨로스 EV 출시
쏘렌토 HEV, 카니발 HEV도 순차 투입 계획

2027년 이후에는 현재 주력 모델인 소넷, 카렌스, 셀토스에 HEV 라인업 추가하고 현지 전략형 모델 신규 투입 예정. 친환경차 차종은 2030년까지 8개 차종 모델 운영

인도시장 중장기적 판매 확대와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현지 딜러망 800개로 확대. 딜러 지원 활동과 인증 중고차 판매 거점 지속 확대

신흥 시장에서는 B-SUV가 최대 볼륨 차급
셀토스, 소넷 집중 육성해 2030년 셀토스, 소넷 모두 20만대 이상 판매 추진
멕시코, 인도 등 현지 생산과 중국 공장 수출 지속 확대해 공급처 다변화할 계획
2030년까지 CKD 판매 9만대 확대해 2030년 신흥시장 내 비중 13%로 확대

재무 전략

2021년 이후 연평균 매출 13% 성장하면서 산업평균인 7%를 상회
이는 브랜드 향상, 제품 가치 상향에 따른 ASP 상승 그리고 차량 믹스 개선에 따른 질적 성장이 주도

2025년 산업은 비우호적인 환경 맞이하며 전반적인 수익성 하락을 경험했으나, 기아는 OPM 8% 기록하며 높은 수익성을 유지

#2026년 사업계획

2026년 목표 매출 122.3조원(+7.2% YoY 이하 YoY), 영업이익 10.2조원(+12.4%), OPM 8.3%(+0.3%p), 글로벌 MS 3.8%

도매판매 335만대(+7%) 계획 수립
미국에서는 텔루라이드, 셀토스 하이브리드 포함한 신차 출시, 유럽에서는 EV2~EV5에 이르는 대중화 EV 풀라인업이 판매 확대를 주도할 전망

2026년 친환경차 판매는 112만대(+45%) 목표. 투자비 10.1조원(+13.7%) 계획

#2026년 이익 변동요인 전망

인센티브 증가, 보수적 환율 가정, 관세 영향으로 2.4조원의 이익감소 예상
판매/믹스 효과, ASP 상승, 원가개선, 고정비절감등으로 3.5조원의 이익증가 전망
이를 통해 영업이익 25년대비 1.1조원 증가한 10.2조원 전망

#중장기 재무 목표

2028년 매출 150조, OPM 9%
2030년 매출 170조, OPM 10% 목표
단기 전략: 신차효과 극대화, HEV 원가 경쟁력 강화, 선제적 현지화
중장기 전략: xEV 스케일업, EV 원가 경쟁력, 스마트 팩토리 전환

#미래 사업 중심 투자 확대

2026~2030년 5개년 총 투자비 49조원
미래사업(전동화, SDV, 자율주행, 로보틱스)에만 21조원 투자 예정
투자효율성 지속 유지하며 CapEx 비율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

주주환원율은 2025년 35%. DPS 6,800원 기록
2026~2028년 TSR 35% 이상 목표 설정

- 최소 DPS 5천원. 우상향 기조
- 연중 자사주 분할 매입
- 배당 25%, 자사주 10%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광래, 한승훈)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상기 회사 기아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선물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당사는 상기 회사 기아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식옵션의 유동성 공급회사(LP)임을 고지합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